

(財)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第60回理事会

平成14年5月

2002.4.2. J.T.

War crimes dispute heats up in Serbia

Government demands Kostunica back extradition of suspects to U.N.

BELGRADE (AP) The leaders of Yugoslavia's dominant republic, Serbia, demanded Monday that the country's president support the extradition of war crimes suspects or tak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national isolation and financial ruin threatening the country.

The U.S. Congress had given Yugoslav authorities until March 31 to cooperate with the U.N. tribunal by handing over the suspects or lose \$120 million in financial assistance.

Serbia's Justice Ministry on Sunday served police arrest warrants for four Milosevic aides, charged along with him with crimes against humanity during the 1998-99 Kosovo war.

Some 15 suspects indicted in connection with bloodshed in Kosovo, Bosnia and Croatia still remain at large. U.S.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is to decide this week whether to make the suspension final.

Yugoslav President Vojislav Kostunica calls the U.N. tribunal illegal and anti-Serb. He has said he opposes extraditions to the court until the

country passes a domestic law regulating extraditions.

But other leaders, afraid to lose the U.S. support necessary for recovery of the country's devastated economy, have pushed to extradite some of the 15, who held top positions in former Yugoslav President Slobodan Milosevic's regime.

In an interview published Monday, Kostunica said "co-operation cannot be avoided ... it's something we have to live with." But he insisted that without a clear national law regulating the cooperation, handing over any suspects would result in the "destabilization of the country."

In the interview published by the weekly Bosnian Serb Reporter, Kostunica blamed his prodemocracy rivals in the Serbian government for allegedly obstructing a draft law regulating cooperation with The Hague, and said they were responsible for the looming sanctions.

The Serbian Justice Ministry said it expected police to follow through on the four indictments and apprehend Milan Milutinovic, the current

Serbian president; Nikola Sainovic, Milosevic's top security adviser and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Dragoljub Ojdanic, a former Yugoslav Army commander; and Vlajko Stojiljkovic, former Serbian interior minister in charge of the police.

Acting on a similar ultimatum, the Serbian government last year arrested Milosevic, now standing trial in The Hague for atrocities that his forces allegedly committed in Kosovo, Bosnia and Croatia in the 1990s.

That handover last year triggered protests from Kostunica and his nationalist followers. Determined to avoid a similar crisis, the Serbian government has demanded that Kostunica either agree to the handovers or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unitive sanctions.

"The United States will impose sanctions ... that will mean turning the clock back to the era of Slobodan Milosevic, to misery and isolation," Serbian Justice Minister Vladan Batic told reporters early Monday, alluding to the U.S. deadline that expired

at midnight Sunday.

Batic and other members of the Serbian government blamed Kostunica for "ruining all the good deeds" of the mostly democratic leadership that jointly ousted Milosevic in October 2000.

Serb suspect caught

SARAJEVO (AFP-Jiji) NATO-led peacekeepers Monday arrested a former Bosnian-Serb military officer who could be linked to war crimes committed in Srebrenica, Bosnia-Herzegovina, a police source said.

The police source in Zvornik said Momir Nikolic was arrested by the NATO-led Stabilization Force around noon in the nearby town of Bratunac, in eastern Bosnia.

Nikolic served during the 1992-95 Bosnian war as deputy intelligence chief with the Bratunac brigade that allegedly took part in the 1995 attack on the former Muslim enclave of Srebrenica.

Some 7,000 Muslim men and boys were executed by Serb forces at Srebrenica in the worst known war crime of the Balkans conflict.

2002.4.9.

卷之三

近年の韓国における反日の、したのだ。動きは韓国社会の変化による。盧泰愚政権（一九八八～一九九二年）以降の民主化時代の韓國安婦問題がそうだ。この問題は一九八〇年代以降の日本と並ぶ最大の反日テーマになってしまった。この時期までの問題が登場した背景にはやはり韓国における民主化がある。ちなみに韓国安婦問題とは、日本統治時代の一九三〇年代から日本敗戦の一九四〇年代前半にかけ、戦地などで日本兵士を相手に慰安婦をしていだという韓国人女性たちが、日本に対し謝罪や補償を要求

言論の自由進み公然化

第一部 反日感情の表裏

を求めるに至った。世論主導の対外交の典型的である。

「」のうち「補償」について、論を主張する声がある。韓国政府はその後、当事者個人が日本、政府を相手に訴訟などで要求するのは自由とする一方、韓国政府として日本政府に補償を要求はしていない。韓国政府自らが元慰安婦（現在、百四十二人）に政府予算で生活支援金を支給しているのだ。

これは、日本統治時代にか、金白書（一九七六年、経済企画院発行）には個人補償のかわる補償問題は一九六五年に解決済みである」と、したがって補償（請求権資金）は韓国政府が日本政府から既に受け取っているため、個人補償が必要な場合は韓国政府が代わって支払うという、國家としての原則にしたがった措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韓国マスコミは幾重的に無視しているが、外交当局者に

は「個人補償の要求は韓国政府にすべきだ」という「正論」を主張する声がある。韓国政府から韓国政府に支払はかりに補償が支払われたとある。だから過去の補償は韓国政府に要求しようとの動きが一部ある。

『独島は日本の領土』歴史教科書に初めて記述 我が国政府への事前説明時には言及なし

日 歪曲教科書の問題点

歪曲された内容を盛り込んだ日本の歴史教科書『最新日本史』は独島（竹島）領有権、従軍慰安婦に関する記述の漏落、3・1運動の流血弾圧など、問題点を含んだままで検定を通過した。

問題点：

独島	今までの歴史教科書には載せられていなかった『独島領有権の主張』が含められている。
3・1運動	軍隊による示威隊虐殺が示威隊の『過激性』によるものという印象を受けるように記述されている。
関東大地震	流言飛語の流布の主体や、朝鮮人虐殺についてを曖昧に記述。
皇民化政策	政策の弊害に関する記述を削除
強制労働	強制徴兵の焦点をぼやけさせている。
任那日本府	任那日本府説に関する視角をそのまま堅持。

この教科書について韓国政府は「全般的に現行の記述を維持した中で、一部の記述を改善した点については評価する」としている。問題は世論の動向である。政府関係者は「ワールドカップを控えているわけだし、採択率0.4%にすぎない教科書ごときでわざわざ騒ぎ立てる事もないだろう・・・」と世論の様子を窺っている。／東京＝権大烈記者
(朝鮮日報'02年4月10日社会面・要約)

‘독도 일본땅’ 역사교과서 첫 기술

우리 정부에 사전설명땐 언급안해

日 왜곡교과서 문제점

왜곡된 내용을 담은 일본·역사 교과서 ‘최신 일본사’<사진>는 독도 영유권, 종군위안부에 대한 기술(記述) 누락, 3·1운동 유혈 탄압 등 문제점을 포함한 채 검정을 통과했다.

◆ 새롭게 제기된 독도

‘최신 일본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독도(獨島) 관련 기술이다. 이 책의 과거 판(版)에는 없던 내용이나, 이번 개정판에 추가됐다. 물론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역사교과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이라고 기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정부에 사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과목이 아닌 다른 일본 교과서들에 독도 문제가 거론된 경우는 지금까지도 꽤 있었다. 정치·경제, 지리, 현대사회 과목에는 총 10개사(社) 교과서에 독도 문제에 대한 서술이 실려 있다.

◆ 문제의 교과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왜곡 교과서 논란의 불미사를 제공한 일본 고교용 역사교과서 ‘최신 일본사’는 1986년 한국과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편 일본사’의 개정판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교과서를 통과시켰으나, 한국·중국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 4차례에 걸친 재수정 작업을 벌였

◇ ‘최신 일본사’의 문제 내용

제목	내용	기준 내용	내용
독도(獨島)	기술, 일본	우리 고유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 북방 경로는 러시아에, 지금까지 역사 교과서 설명, 한국이 다카시마(竹島)와 함께 영유권을 중국이 선기류·재도 주장이 포함됨	우리 고유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 북방 경로는 러시아에, 지금까지 역사 교과서 설명, 한국이 다카시마(竹島)와 함께 영유권을 중국이 선기류·재도 주장이 포함됨
3·1운동	시위 활동이 대규모로 확장되면서 3·1운동 유혈 진압으로 번졌다	3·1운동 유혈 진압으로 일본이 조선인에게 물질적 압박을 가하고, 그에 맞서 조선인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1운동 유혈 진압으로 일본이 조선인에게 물질적 압박을 가하고, 그에 맞서 조선인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동대지진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이 조선인에게 물질적 압박을 가하고, 그에 맞서 조선인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이 조선인에게 물질적 압박을 가하고, 그에 맞서 조선인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이 조선인에게 물질적 압박을 가하고, 그에 맞서 조선인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민족 정체성	한민족 정체성이 확립되었지만 유언비어가 퍼져나와 한족으로 부호한 사람들은 있었으나, 각자 다른 자경단 등이 다수의 조선인을 차지, 차별화 비하한 시각도 있어난다	한민족 정체성이 확립되었지만 유언비어가 퍼져나와 한족으로 부호한 사람들은 있었으나, 각자 다른 자경단 등이 다수의 조선인을 차지, 차별화 비하한 시각도 있어난다	한민족 정체성이 확립되었지만 유언비어가 퍼져나와 한족으로 부호한 사람들은 있었으나, 각자 다른 자경단 등이 다수의 조선인을 차지, 차별화 비하한 시각도 있어난다
강제동원	조선에서도 강제징집 실시돼 청년이 전투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에서도 강제징집 실시돼 청년이 전투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에서도 강제징집 실시돼 청년이 전투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부 토론회	일본부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인들은 일본의 부설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생각된다	일본부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인들은 일본의 부설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생각된다	일본부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인들은 일본의 부설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생각된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내용도 없어

다. 일본은 검정에 통과된 여러 교과서들 가운데서 각급 교육위원회와 학교가 한 가지를 선택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신편 일본사’는 한 학년도에 최대 8000부가 채택되는 데 그쳐 출판사가 문을 닫았다. 그 후 메이세이샤(明成社)가 판권을 이어받아 ‘최신 일본사’라는 이름으로 바꿔 출판을 계속하고 있으나, 작년에도 전국 15개교에서 2452부(채택률 0.38%)를 채택하는 데 그쳤다.

이 출판사는 작년과 재작년에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왜곡된 중학 역사교과서가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일반 서점에서 30만부 이상 팔리자, 또 한 차례 ‘우경화 바람’에 편승하기 위해 8년 만에 국수주의적 역사관을 강화한 개정판을 만들어 이번에 검정을 신청했다.

이 교과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반적으로 현행 기술을 유지한 가운데 일부 기술을 개선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론의 향배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월드컵을 앞두고 채택률 0.4%짜리 교과서 때문에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일인데…”라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東京=權大烈특파원
dykwan@chosun.com

2002.4.10.

产地

禍根残す主体性なき検定

来春から使われる高校教科書・学習指導要領などに沿ってチェックする検定が終わった。日本とどうう日本の検定制度の趣旨にも反対する厳しい検定は事実上、といえる。昨夏の韓国の再修正要求を大々的に受け入れたものである。「李氏朝鮮」という表記」「適切ではない」と意見をつけたことだ。李氏朝鮮は十四世紀末、李成桂が高麗を倒して建てた王朝のことである。不適切とした理由を文部科学省は「韓国では使われず、日本の朝鮮史学会でも使われなくなつた」と説明している。

しかし、日本史学会では今も一般的な用語として使われ、多くの辞典や教科書にも載っている。紀元前二世紀の「衛氏朝鮮」などと区別する意味もある。何よりも、韓国でなく日本の子供たちが使う教科書ではないか。「李氏朝鮮」をなぜ、今、あえて書き直す必要があるのか、理解に苦しむ。四世紀後半の「任那日本府」説に基づく記述にも検定意見がついた。任那日本府はなかつたとする韓国側の主張の検定が終わつた。日本とどうう日本の検定制度の趣旨にも反対する厳しい検定は事実上、といえる。特に、問題があると思われるのは、時局では、「任那日本府」説も許容され、殺四十万人、説まで検定をパスしているのは、どういうわけか。国民の納得の原則自由な記述を認めつゝ、ない」と意見をつけたことだ。李氏朝鮮全体として、対朝鮮半島史について

は、検定のストライクゾーンが極端に狭められ、異論を排した検定が行われたようだ。今後の朝鮮史の研究が、いつになりかねない懸念するある。昨年四月に発表された中学歴史教科書の検定では、自虐史観に異を唱える様な記述が登場した。その後、韓国が扶桑社教科書の新規参入もあって、多様な検定が登場した。そのうち、中国が八項目の再修正要求をしてきたが、文部科学省は韓国が

求めていた項目のみを明白な誤りの指摘として受け入れるに止め、「李氏朝鮮」の書き換え要求などを突っぱねた。今回の検定姿勢は、当時の対応となりにも違い過ぎる。

その一方で、今では不適切とされる「徒童慰安婦」という表記が相も変わらぬ乱用され、荒唐無稽な「南京大虐殺四十万人」説まで検定をパスしているのは、どういうわけか。国民の納得のいく説明がほしい。

2002.4.10. 読売

社会科の教科書検定の結果例

		申請本の記述	検定意見	修正結果
日本史	朝鮮の国号	李氏朝鮮（李朝）	表記が適切でない	朝鮮
日本史	同上	李氏朝鮮	同上	朝鮮・注・古朝鮮と区別して李氏朝鮮ともいう
日本史	大和朝廷の「拠点」、「任那」	…加羅（任那）と呼ばれた弁韓諸国に拠点を置いていたと考えられる	誤解するおそれのある表現	加羅（任那）に勢力をのばしたと考えられる
世界史	同上	倭（日本）は加羅を根拠地として百濟をたすけ、高句麗に対抗したが、6世紀後半には朝鮮半島から寝食上手を引いた	当時の朝鮮半島と日本の関係についての学説状況に照らして、誤解するおそれのある表現	倭（日本）は加羅や百濟をたすけて高句麗に対抗したこともあるが、6世紀後半には朝鮮半島から手を引いた
現代社会	従軍慰安婦	軍が関与していたことを示す文書が明るみに出たため、1993年、政府は強制連行の事実を認め…	軍による強制連行の事実を示した文書が明らかになつたかのように誤解するおそれがある	調査の結果、軍が関与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となつた。1993年…
日本史	東京裁判	…当時から、勝者が敗者を一方的に裁くこの裁判のあり方には強い批判があった。…パル判事の小数意見書は、敗戦国の戦争指導者個人を「平和に対する罪」に問うのを批判し、この裁判では通常の戦争犯罪のみ裁き得ると主張する一方…被告全員無罪と結論した	極東国際軍事裁判については、さまざまな議論があり、一面的な見解を十分な配慮なく取り上げている	国家の指導者個人が戦争犯罪人として裁かれたのは、例のないことであった。しかし、11名からなる裁判官の間には意見の対立があり、朗読された多数派判決のほかに、インドのパル、オランダのレーリングらが反対意見を書いている
現代社会	周辺事態法・テロ	「沖縄米軍と周辺事態法」「周辺事態安全確保法」が施行され、「我が国の平和と安全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態」への対応手順などが定められた。その起こる地域については地理的に特定せず、総合的に判断するとしているが、日本全体の米軍常用施設の75%が集中する沖縄の基地は…	周辺事態法の施行が沖縄米軍基地どのようにかかわるのかが説明不足で理解し難い	「周辺事態法とテロ対策特別措置法」…その起こる地域については地理的に特定されていない。また2001年9月11日にアメリカで起きた同時多発テロ事件への対応のため、同年10月29日に「テロ対策特別措置法」が成立した…（沖縄基地の部分は写真説明に移動）

2002.4.10. 産経

審議会に朝鮮史学者、韓国シフト、色濃く

■朝鮮半島関係の記述に対する主な検定■		
	検定前	検定後
任那	そのころ倭（日本）は加羅を根拠地として百濟をたすけ、高句麗に対抗したが、6世紀後半には朝鮮半島から事実上手を引いた。【山川出版社・世界史B】	そのころ倭（日本）は加羅や百濟をたすけ、6世紀後半には朝鮮半島から手を引いた。
李氏朝鮮	李氏朝鮮（李朝）を建てた。【山川出版社・日本史B】	朝鮮を建てた。
江華島事件	李氏朝鮮を迎えた。【明成社・日本史B】	朝鮮を迎えた。<脚注>古朝鮮と区別して李氏朝鮮ともいう。
日清戦争	朝鮮水域に派遣した日本の軍艦に対する江華島の砲撃を機に、日本はただちに応戦し、付近の島を略奪したうえ、民家を焼き払った。この間、島はただ砲撃で朝鮮側に死者も出た。【山川出版社・世界史A】	朝鮮水域に派遣された日本の軍艦が、ボートをおろして江華島と本土の間の水路に沿って侵入したため、日本軍艦は島を略奪したうえ、民家を焼き払った。
朝鮮統治	日本も時を移さず派兵したため反乱は鎮圧されたが、日清両国が共同で朝鮮の内政改革をおこなうとのわが国の提案が拒否され、対立は深まつて、安全保険の決意を固め……日清戦争がおこった。【明成社・日本史B】	日本も時を移さず派兵したため反乱は鎮圧されたが、日清両国が共同で朝鮮の内政改革をおこなうとのわが国の提案をめぐって交渉が難航し、対立が深まつた。日本は「大砲を一掃する決意を固めた」。
	(削除)	(削除)



七社の任那関係の記述を修正するよう要求している。韓国政府は扶桑社など七社の任那関係の記述を修正せられた。

「中学」合格の記述、削除

日本人にはじみが深かったことを否定し、やはり中学生教科書にない。宮崎氏は大阪市出身、定審に入れるのかと首りがちだ。なぜ教科書検査の主な修正は、表の通りで、朝鮮の勢力を朝鮮から一掃する決意がおこった。

文部科学省は昨年の教科書騒動がほぼおさまったと、門で、在日韓国・朝鮮人についても発言していく。扶桑社教科書の検定で扶桑社の「大和朝廷は半島南部の任那（加羅）といふ。地に奥地を置いていたとする説は、広く主張されており、昨年の中学教科書検定で扶

消えた「李氏朝鮮」

■利益代表？

複数の日本史学者は、「宮崎氏が所属する朝鮮史学会は歴史学金の中で、も特質的な存在。どうして、も韓国や北朝鮮に甘くな

りがちだ。なぜ教科書検査の主な修正は、表の通りで、朝鮮の勢力を朝鮮から一掃する決意がおこった。

■昨年は合格

古代「朝鮮半島南部の

く、やはり中学生教科書にない。

宮崎氏は大阪市出身、定審に入れるのかと首りがちだ。なぜ教科書検査の主な修正は、表の通りで、朝鮮の勢力を朝鮮から一掃する決意がおこった。

■突然の任命

文部科学省は昨年の教科書騒動がほぼおさまったと、門で、在日韓国・朝鮮人についても発言していく。扶桑社教科書の検定で扶

文部科学省は昨年の教科書騒動がほぼおさまったと、門で、在日韓国・朝鮮人についても発言していく。扶桑社教科書の検定で扶

文部科学省は昨年の教科書騒動がほぼおさまったと、門で、在日韓国・朝鮮人についても発言していく。扶桑社教科書の検定で扶

文部科学省は昨年の教科書騒動がほぼおさまったと、門で、在日韓国・朝鮮人についても発言していく。扶桑社教科書の検定で扶

文部科学省は昨年の教科書騒動がほぼおさまったと、門で、在日韓国・朝鮮人についても発言していく。扶桑社教科書の検定で扶

「白表紙本」など漏洩

昭和六一年の教科書

明成社

共産系グループに

漏洩

2002.4.10. 産経

教科書検定不適切な表現次々通過

残つた「従軍慰安婦」

九日発表された高校教科書の検定結果では、中歴教科書から姿を消した「従軍慰安婦」の表記が幅を広げて、「性奴隸」と「彼女たちを辱め」といった描写がフリー・バス。南京事件の犠牲者数として、中國政府の主張をも上回る四十万人とう数字など、不適切な記述が明らかにならぬままが次々通過した。また、日本の伝統的な男女観、家庭觀を否定する「政治・経済」といふた検定制度への国民の憤慨を、大きく描かず結果となつた。

● 慰安婦

教科書に慰安婦を記述する」とへの批判が高まつたことを受け、昨年検定に合格した中歴教科書では、慰安婦や慰安施設に触れているのは八社中三社で減少。専門使われていなかった「従軍慰安婦」という呼び方はなくなった。しかし今回の高校教科書では、政治・経済に対する根深い歴史的構造はな

る。

「40万人虐殺」も登場

(渋谷)

● 南京事件

日本海兵をおどしめた

● 「侵略」

の上限が「二十万人以上」、中國政府でさえ「三十万人」なのに、戦後歴史教科書に「四十万人」をすぐて説いている研究家、上杉千代氏も「日本史教科書に『四十万人』が登場したのは初めてだ」と懐かしく感嘆だ。

「韓国併合や侵略戦争

基調だ。

● 「自衛隊」

「男のこさ」「女のこ

さ」は社会的・文化的に

わる人がまだ多いが

「大和撫子」「たおや

かせられた」(三泰堂、立つものが多い。

△など強制連行説に

させられた)

(三泰堂、立つものが多い。

△など強制連行説に



일본 교과서 왜곡 그림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국장신대 등 비정협의체 수요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최근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장신대 제공)

日本の教科書の歪曲を糾弾する団体

10日午後、ソウル鐘路区中学洞にある日本大使館前で開かれた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の水曜デモで、あるハルモニが最近の日本教科書の歪曲問題に関する発言をしており、／卓キヒョン記者

(ハンギョレ新聞 02年 4月 11日 社会面)

2002.4.11

卷之三

意図的誤報で国民激高

慰安婦問題で日本料理を統率した首相の訪韓に先立ちて韓国にいる韓国の支援団体が、マスコミが展開した「日韓が元慰安婦の老女たちを先頭に、十二歳の女子小学生まで慰安婦週水曜日」ソウルの日本人「婦人動員」という反日キャラクターで抗議集会を強いて、シベーンだ。これは、実は前年、先づそれが五百回を迎えた年の夏、日本のテレビが過去えたとして韓国マスコミが大々的に報道した。この事件は、その時期の意味を伝えた「美しい伝説」を過帳させ、韓国の国民党も、懲罰を対象に懲罰にもつて、韓國でもっとも執拗に反日を煽り開している集團として、十年来どうから、近年、韓國でもっとも執拗に反日を、た術的な出来事だった。

第1部 反日感情の表裏

談話で、当時の慰安婦の生活は「強制的な状況の下での痛ましいものであった」とし、われ自國民の安全を守れなければ朝鮮半島からの慰安婦の募集・移送・監禁などは「絶対に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行われたとしたうえで、「わが政府は」全体的な強制性を認定し、被験者に対する謝罪と反省の意とともにこれを歴史の教訓として直視していくとの決意を表明した点などを評価する」(外務省スポーツマンの公式論評)といふ。今後は外交問題にしないとの見解を明らかにしていく。

外交的決済に際し韓国政府は現在、慰安婦問題から手を引いて聞で印象に残った社説がある。「一九九三年八月五日の朝鮮日報は次のように主張し

「われわれが日本に國を奪ったのではなく、た徳的・政治的責任は、過去にフタをしておいたのである。過去の問題としてわれわれ自身にあるという観点も可能だ。過去にフタをしておいたのではないが、過去のための時、韓国政府は「(日)今日と明日が一步も進まない」というのは現代的な外交の道ではない。從重慰安婦問題はその性格上からも愉快なことではない。日本政府の對外政策をきっかけにわれわれが捕虜は引き受け、この恥すべき過去の醜態はもう閉じてはどうだらうか」

たしかに韓国政府は現在、

慰安婦問題から手を引いている。しかし「國」はまだ必ずしも閉じていない。

(つづく) 黒田勝弘

2002.4.12. 読売

田城ジエノサイア（無主）

戦争犯罪に常設裁判所

日米露中は不参加

する罪」などの戦争犯罪を犯した個人を裁く世界初の常設裁判所「国際刑事裁判所」(ICC)オランダ・ハーグの設立条約は十一日、批准国数が発効要件を満たしたことにより、発効がなされた。百二十九か国が署名しながら、国ごとに法制度や解釈が異なり、一時は「批准までに二三十年かかる」といわれたが、現在は批准国数が増加の一途を辿り、今後は条約が発効する見込みだ。

年はかかることになつたが、予想外に早く決算された。國連本部では開口式、記念式典が行われた。ILOの設立は1903年になる見通しだが、日本をはじめ、米国や中国などの主要国が締結に加わっており、実効性などをめぐる国際的論争が今後過熱しそうだ。

一九四八年に採択された国際刑事裁判所設立条約(ローマ規定)は、六十か国の批准で発効要件を満たす。これまで独、仏、英など欧州各国を中心にして五十六か国が批准した。この式典で、さらにはスニア、ルーマニア、カンボジアなど十カ国が批准書を国連に提出した上で、一氣に要件を満たし、七月一日に正式発効することになった。

この種の国際裁判所としては歴史上、第二次世界大戦後の極東(ソ連・中国)とベルクの軍事裁判においては、法廷と検察部門が協約に基づき、ネーブ諸協約や各種の人権保険条約に基づき、ジェノサイドや戦争犯罪などについて個々の罪を捜査・訴追し、裁くことにならなかった。

しかし、これらが一定の期間だけ対象国・地域を限定して開かれる臨時の裁判所なので、いかんが如きは、常時、幅広く法の網をかぶせることが目的とする。

しかし、最大の問題は、米国・ロシア・中国・イングランド・日本などの大國が」というと、未批准である。ナチス・ドイツによるホロコースト（ユダヤ人大虐殺）などの教訓から、ICC設立の議論を主導してきたのは歐州で、運営分担金を最も多く支払うのもドイツ

裁判の結果、有罪判決が出ると、犯罪人は犯罪の実行国か国籍を持つ国など関係国で死刑の執行を受ける。死刑はな
いが、無期を含む懲役や罰金などの刑罰が規定されてい
る。上訴、再審も可能だ。

ICCの設立によって各国の人
権団体などは、カンボジアの
旧ボル・ボト政権下の大屠戮
殺のような虐殺が今後発生し
ても、「監視機関があれば裁
けられる」となる」と期待を高
せている。

過去の犯罪をさかのぼつて裁判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時効は

一方、米国がクリントンがブッシュ政権は一〇〇六

立てば誰に反対しても米
国が非締約国であっても、米
軍の駐留国が締約国なりば、
政府の判断を問はず、对

来年一月に入ること、裁判官の任命や、締約国による分担金支払いなど、具体的な設立作業が始まる。しかし、史上初の「法の網」を世界に広げる試みが始まると同時に、「米欧間の隔離は避けられない」(國連外交筋)との見方も強い。

被告を個人としているため、犯罪を犯した米兵の身柄が、じつに取り渡される可能性があるためだ。また、IOCは、「上官の命令」や軍規を理由とした主張を認めない方針で、米国」とどまり多くの政府が難色を示している。

2002.4.14. 新潟日報

新潟聞く

印度ネシアの元従軍慰安婦 軍慰安婦の現在に密着し た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に インドネシアの元日本 の人生に起きたこと」 がこのほど新潟市で上映 「Mardi yem 彼



NHKで報道番組の制作に従事するが、2000年5月退社。現在はフリーのディレクターとしてテレビ番組制作に携わる。

歴史の延長者となつたマードーと書えない」と、マルティルディエムがこれを「一分、イエムがいたたひ顔向けて一秒でも逃さないよ」に「できない」と語る。歴史教育の重要性も強調つた「と振り返る。

一戦争のない世界を目指す

部生まれ。が、20
るが、20
ダイレクタ
撮った」と振り返る。
インドネシアの慰安婦
関連史料は少ない。だが
ら」を証言は慎重だ。九
月をかけて九十分余の
作品に編集し、昨年十月、た。でも日本では違う。
山形を皮切りに各地を回
り、インドネシアやオランダでも教科書から消えようとし
てある」と憂える。

新潟市での上映後、会
場から海南さんに「どう
したら(元慰安婦たちの)傷を癒やせるか」という
質問が飛んだ。海南さん
は答えた。

個人への賠償は行われて
いない。戦後補償の解決
策を求め、映画製作に没
「本当の意味で心を癒

安婦の歴史を伝える意義 戦犯法廷。「加害国の日」の三年半、一日に十人以上なく、自國の政府とも開いた。本人として何かで差し引く上に日本兵にレイプされ、わなければならなか（学業部・中村茂）ではないか」と示ラント 海南さんが撮影を始め イアで参加し、証拠収集 るきっかけとなつたの のために同年九月、イン 続けた。「苦しい。すべて」と海南さん。慰安

策を求める、映画製作に没頭した海南さんが出したやることはできない。失結論は「戦争のない世界」つた時間は戻つてこなかつくることが大切」とい。みんな幸せな結婚といつづいた。今回全に捉家庭を見ていた。これ出される予定の有事法制から私たちみんなが仲良関連法案や米国のアフカくできる世界をつくるよ二スタン報復戦争に反対しよう

2002.4.17. J.T.

Yugoslav war crime suspect opens negotiations on surrender to Hague

BELGRADE (Reuters) Former Yugoslav Deputy Prime Minister Nikola Sainovic has begun negotiations about surrendering to the U.N. war crimes tribunal, Serbian Justice Minister Vladan Batic said Monday.

Batic said lawyers for Sainovic, indicted with ex-President Slobodan Milosevic over atrocities in Kosovo, contacted Serbian authorities Friday after the Yugoslav Parliament passed a law on cooperation with The Hague tribunal.

"Nikola Sainovic's lawyers were in contact with us on Friday, straight after the law was passed," Batic said.

A prominent Belgrade legal firm, which said it represented Sainovic, denied talks had taken place. But a Serbian government source stood by Batic's statement.

The war of words over Sainovic's intentions underscored the high political sensitivity in Serbia of relations with the tribunal. Many Serbs see the court as biased against them.

Another former senior official indicted over Kosovo, ex-Interior Minister Vlajko Stojiljkovic, shot himself outside the Parliament on Thursday evening to protest the new law. He died from his injuries Saturday night.

The law, agreed upon under heavy U.S. financial pressure after more than a year of arguments among the reformers who ousted Milosevic in 2000, paves the way for suspects indicted by the tribunal to be handed over.

Batic's comments came a day after the former army chief of staff, Gen. Dragoljub Ojdanic, also indicted over mass killings and expulsions of ethnic Albanians in Kosovo in 1999, was reported to be ready to surrender to the tribunal.

His lawyer, Vojislav Seljan, said Monday that Ojdanic was not planning to surrender unprompted but would respond to any court order related to the tribunal's indictment.

"It's wrong to use the word 'surrender.' It's a strong and

insulting word. It would be right to say he will respond to a summons and voluntarily appear before the court," he said.

Under the new law, local courts play a key role in the legal procedure leading to the handover of a suspect.

Yugoslav and Serbian officials have said the proceedings stipulated by the law might take up to two weeks before the first transfer. But they have urged suspects to turn themselves in rather than wait to be arrested.

Yugoslav Justice Minister Savo Markovic told the Beta news agency Monday his ministry had not forwarded indictments to local courts but could do so soon.

The Hague tribunal is seeking more than 30 fugitives, most of them believed to be in Yugoslavia or Bosnia-Herzegovina's Serb republic. The most-wanted are Bosnian Serb wartime leaders Radovan Karadzic and Ratko Mladic, both charged with genocide.

2002.4.23. J.T.

Suspects in Yugoslav war crimes set to surrender to tribunal

BELGRADE (AP) Two key suspects of the U.N. war crimes court said Monday that they would surrender to the tribunal, just hours before a Yugoslav government deadline expires for 23 people to turn themselves in or face arrest.

Lawyers for former army commander Gen. Dragoljub Ojdanic and former Croatian Serb rebel leader Milan Martic submitted surrender papers to the Yugoslav Justice Ministry just before midday.

Justice Minister Savo Markovic told a local radio station Monday that he will travel to The Hague this week so he can "defend the dignity of the (Serb) people and the army" in front of the tribunal.

eral suspects contacted the ministry. He refused to provide names.

Ojdanic, who commanded the army during the 1999 NATO airstrikes against Yugoslavia, was charged by the court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with alleged war crimes in Kosovo during a Serb crackdown in the province. About 800,000 Kosovo Albanians were deported from their homes and thousands were killed.

"I don't feel guilty," he said. Ojdanic told a local radio station Monday that he will travel to The Hague this week so he can "defend the dignity of the (Serb) people and the army" in front of the tribunal.

Martic was a leader of Serbs in Croatia who rebelled when the republic seceded from Yugoslavia in 1991. As Croatian forces regained rebel-held territories, Martic allegedly ordered retaliatory missile fire against the Cro-

atian capital, Zagreb, that killed several civilians in 1995.

Since his indictment by the U.N. court in 1995, Martic has been hiding in Bosnia-Herzegovina and Serbia.

Strahinja Kastratovic, the

lawyer for Martic, said Monday that his client "wants to surrender to his state and to go to The Hague."

Kastratovic read Martic's statement saying, "I'm ready to go to The Hague to prove my and my compatriots' innocence."

Vojislav Selezan, Ojdanic's lawyer, said that "the departure of my client to The Hague has been agreed" but that guarantees must be provided granting the former general freedom pending trial.

The federal Parliament this month passed a law regulating extraditions and other forms of cooperation with the U.N. court and granting privileges for those who surrender.

Government officials have published a list of 23 suspects wanted by the court. Serbian Justice Minister Vladan Batic suggested that all of them would be hunted down if they do not surrender.

Bosnian Muslims aim to bring case against Dutch, U.N.

SARAJEVO (AFP-Jiji) Srebrenica's Bosnian Muslim administration plans to press charges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gainst Dutch officers and U.N. officials for failing to prevent the massacre in the enclave during the Bosnian war, a news report said Sunday.

"We will file charges in or-

der to highlight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of those involved in the Srebrenica massacre on the basis of their political or military role at the time," the town's Muslim mayor, Sevket Hafizovic, told the Dnevni Avaz, a daily.

More than 7,500 Muslims were killed when Bosnian Serbs captured the town in July 1995 in the worst massacre in Europe since World War II.

He said charges would be filed with the ICC against Dutch officers and U.N. officials who we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massacre but did not do enough to prevent Bosnian Serb troops from committing it.

202.4.23. J.T.

YASUKUNI ANGER

Beijing, Seoul envoys slam visit

The ambassadors of China and South Korea on Monday protested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s weekend visit to Yasukuni Shrine, saying it hurt the feelings of their countries' people.

In separate meetings with Vice Foreign Minister Yukio Takeuchi at the Foreign Ministry, Chinese Ambassador Wu Dawei expressed "deep regrets and strong opposition" to Koizumi's surprise visit Sunday.

Although Koizumi has decided not to visit Yasukuni in August, close to the anniversary of Japan's surrender in World War II, Wu said China opposes visits to Yasukuni by Japanese leaders "at any time in any form."

China claims that the shrine, which honors 14 Class-A war criminals among Japan's other war dead, symbolizes the nation's past militarism.

South Korean Ambassador Cho Se Hyung also expressed "regret" over Koizumi's visit, and urged an early establishment of an alternative memorial for the war dead that does not enshrine Class-A war criminals.

A government panel is currently studying the creation of such a memorial.

However, Cho at the same time expressed hope that the "friendly atmospher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will continue during the co-hosting of the World Cup soccer finals and various other

exchange events.

It is feared that Koizumi's visit to the shrine, his second since he took office in April 2001, will spark anti-Japanese sentiments in South Korea just six weeks ahead of the World Cup.

Many South Koreans still harbor bitterness toward Japan for its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1910 and 1945.

In Naha, Okinawa Prefecture, Monday, Takenori Kanazaki, the leader of New Komeito, a coalition partner of Koizumi's dominant Liberal Democratic Party, indicated New Komeito is unhappy with Koizumi's visit and the criticism mounting at home and abroad.

"It is undesirable for the visit by the prime minister of one nation to Yasukuni Shrine to become a major issu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Kanazaki said in a speech.

But Kanazaki also showed some understanding of Koizumi's action, describing it as "a private visit."

World Cup exec upset

SEOUL (APF-Jiji) South Korea's World Cup chief Chung Mong-Joon on Monday accused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of undermining efforts to successfully co-host the event in less than 40 days.

Chung, a vice president of FIFA, football's international governing body, said Koizumi's visit to Yasukuni Shrine

on Sunday had soured the awarding of the event to the rival neighbors.

The World Cup starts May 31 in Seoul and ends June 30 with the championship game in Yokohama. FIFA awarded the event to the two neighbors partly to help them overcome past hostilities.

In a statement released by his parliamentary office, Chung said: "It directly breached the purpose and spirit of the cohosting of the World Cup finals when 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 visited Yasukuni Shrine on April 21."

'Tolerance' urged

TAIPEI (Kyodo) While Japan's other East Asian neighbor

bors have condemned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s visit Sunday to a shrine for the war-dead that also honors convicted war criminals, Taiwan on Monday urged more tolerance concerning Japan's wartime history.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s visit to Yasukuni Shrine has caused concern on many sides," the Foreign Ministry said in a press release, and that Taipei understood the domestic political reasons that triggered the visit.

"The Foreign Ministry stresses that while history cannot be forgotten, it should be viewed with a spirit of tolerance and a forward-looking attitude," the statement says.

War-bereaved leader hails Koizumi

WAKAYAMA (Kyodo) Makoto Koga, president of the Japan War-Bereaved Association, praised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on Monday for visiting Yasukuni Shrine on Sunday and also for deciding not to visit it Aug. 15, the anniversary of Japan's defeat in World War II.

"The prime minister has ultimate responsibility as Japan's leader. When making a decision (on visiting the shrine), he should be influenced not merely by Japan's interests," Koga, a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told a gathering in Wakayama.

Koga said he is aware that

some members of the Japan War-Bereaved Association do not share his view that paying homage at the shrine does not have to be on Aug. 15.

But he said it is essential to find a way to achieve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issue between Japan and neighboring countries, where visits to Yasukuni by prime ministers are a sensitive topic.

"Efforts must also be made to explain the prime minister's feelings more frankly to China and South Korea," he said.

Citizens protest

A Tokyo-based citizens' group on Monday protested Prime Minister Junichiro Ko-



SEOUL — Demonstrators shout during a rally Monday to protest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s visit the previous day to Yasukuni Shrine in Tokyo. AP PHOTO

izumi's visit to Yasukuni Shrine, calling it a sign of rising militarism in Japan.

In a statement, the group said Koizumi's Sunday visit "trampled on the feelings of the families of victims of war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betrayed sensible citizens in Japan."

Along with bills under discussion in the Diet aimed at smoother operations by the Self-Defense Forces during

emergencies, the statement said, "The visit to the shrine can be seen as an action leading Japan to be able to prepare for war again."

In December, the group filed a damages suit against Koizumi with the Tokyo District Court over his visit to Yasukuni Shrine last August.

The body claimed that the trip to the shrine infringed on the constitutional separation between state and religion.

『小泉の神社参拝』抗議

政府、寺田日大使に

崔成泓外交通商部長官は22日に寺田輝介駐韓日本大使を外交部に呼び、前日の小泉純一郎日本総理の靖国神社参拝について公式抗議を行った。

崔長官は「小泉総理がワールドカップ韓・日共同開催わずか一月後に控えた現時点に軍国主義の象徴である靖国神社を参拝して、日本がワールドカップ開催成功へ向けた雰囲気を壊したことを、韓国民は極めて遺憾に思う」と語ったと陪席していた外交部当局者が伝えた。

崔長官はまた、「日本国内で進められている『追悼施設』設置関連の懇談会の経過を注視している」とし、日本政府の誠意ある結論と靖国神社に合祀された韓国人の解祀を繰り返し求めた。

これに対して寺田大使は「韓国政府の厳しい憂慮と遺憾の意をそのまま本国に伝える」と語ったと、この当局者は伝えた。

／金仁恵記者

(朝鮮日報 02年 4月 23日 総合面) ①

「日総理の神社参拝を糾弾」

『教科書本部』政府対応を迫る

日本の教科書を正す運動本部（常任共同代表・徐仲錫）は22日の昼に鐘路区のタブコル公園（旧称パゴダ公園）で、小泉純一郎総理の靖国神社参拝を糾弾する集会を開き、政府の強い対応を迫った。

運動本部は声明書で「小泉総理の神社参拝は日本の極右勢力による軍国主義の復活に免罪符を与える行為」であると主張した。／陳仲彦記者

(朝鮮日報 02年 4月 23日 社会面)

◇「小泉は反省せよ」

日本の教科書を正す運動本部会員らが22日に鐘路のタブコル公園で、小泉日本総理の神社参拝場面を描いた風刺がに火をつけるや、警察が消火をしている。／朱完中記者

(朝鮮日報 02年 4月 23日 社会面) ②

④ ‘고이즈미 神社참배’ 항의

성도 데마다 이전시에

그 점입니다.”로이스가 솔리가 웨인과 앤·윌 풍물개좌를 불러 앤·윌의 몇몇 친구에서 운동장의 상황을 아울러나 친구들 친구들에 일상에 부딪친 걸 친구들이 친구들에

기사)은 전설처럼 여겨졌던 그의
생애와 작품은 “로맨틱한” 문학
의 전통으로 평가되었고, 그의 문학적
성과가 인정되었다.

전성(傳聲)은 “물론 대에서 소리가 퍼지면서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갈수록 소리가 약해지며 멀어질 때에 전해지는 걸로”라며 “수나 신사에 학자들이 물을 드리면서 물 위에서 소리를 전해보았더니”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그녀는 대답: “한국
정부의 엄한 염려와 우려 때문
에 그때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
다. 이에 대해서, 소녀는

/金仁机刀人 ginko's chosun刀人

6

“日 총리 신사참배 규탄”

‘교통신부’ 정부대응 총괄

但說「我就是那將來要到以色列地的
先知」，以色列人就說：「我們聽
了這話，就曉得你是上帝的先知了。
因為上帝的靈在你身上。」

3. 성인은 영어 청취에 강하여 대화
나 쪽을 듣는다.

한국대학원 철학전에서 “한국적인
철학의 전자(전자) 일본 철학자
에게는 그의 저작에 주목해 봤던
것이다.”라고 주장된다.

第4章 8.31日





◇대만 위안부 할머니도… 제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대
무역대표부 앞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위안
부 할머니들은 일본측이 5월 1일을 피해보상 요구 시한으로 정하고民間 차원에서 보상
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臺北=AP聯合

◇台湾慰安婦ハルモニも…

第二次大戦当時、日本軍に慰安婦として連行された台湾ハルモニ5名が、29日に台北
駐在日本貿易代表部前で日本政府の公式謝罪（訳者注：原文は謝過）と賠償を要求するデ
モを繰り広げた。慰安婦ハルモニたちは、日本側が5月1日を被害補償要求时限として設
定し、民間次元で補償金を支給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は日本政府が責任を回避しようとす
るものであると主張した。

／台北=AP聯合

（朝鮮日報 02年 4月 30日 国際面）

2002.5.10. J.7.

Former Chinese war slaves appeal lower court ruling

FUKUOKA (Kyodo) Fifteen Chinese men who were forced to work in coal mines here during World War II appealed a lower court ruling Thursday at the Fukuoka High Court that ordered Mitsui Mining Co. — but not the government — to pay them compensation.

The plaintiffs had demanded a total of ¥345 million in compens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Tokyo-based mining company.

"The government's immunity cannot be accepted," a lawyer for the plaintiffs said, "and we cannot stand without their apology."

The lawyer said the plaintiffs' legal team will cooperate with other lawyers working on similar damages suits and keep pushing until the government admits its responsibility in the case.

On April 26, the Fukuoka District Court ordered Mitsui Mining to pay ¥165 million in

compensation to the 15 men.

Presiding Judge Motoaki Kimura's ruling, which awarded ¥11 million to each plaintiff, was the first in Japan to acknowledge the liability of a company and the government over wartime slave labor.

But Kimura rejected the plaintiffs' demand for government compensation, upholding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spared the government from having to compensate those damaged by the exercise of state power. The Meiji Constitution was in effect between 1890 and 1947.

Mitsui Mining has also filed an appeal against the lower court ruling.

An estimated 40,000 Chinese were captured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war and forcibly brought to Japan.

2002.5.11

卷之三

卷之三

日本は外交摩擦になつた時、
年は教科書問題では蘿經新聞、
も当事者の一人になつた。間に冷感つたといふことだが、
趣にされた「新しい歴史教科」、数少ない東洋民族の中では、
書」が蘿經新聞と同じフシサ、日本が個有權争つてゐる竹
ンケイグループの扶桑社が知、馬鹿国名・独處問題に関する
行元だつたためだ。民族团体 るものが記憶残つてゐる。

反日事件による反日報章で、當時たまたま吉野新聞がある機会はなかつた。これがたゞソウル支局の社説で、竹風は日本の開港の、それよりも、吉野新聞ソウル支局の鳴、領主としての日本政府の公式、くつては今から三、四年前、吉野やファクスの報道も書かれて的立場を確固する主張を述べ、が日本で出版した「吉野新聞」(文庫新編)などが日本マスコミで非難、批判され、吉野新聞は吉野新聞が日本で出版した「吉野新聞」(文庫新編)などが日本マスコミで非難、批判され、吉野新聞は

結果的には正確の折譯や
追はほとんどなく、インター-
ネット上の非難や一部報紙に

●日本への“協力”

抗議にきた人などは、慰安婦問題で支援活動をしているの、「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のあ

の本質を隠蔽する歴史歪曲であり、韓国人に対する蔑視で

想像力の問題としていたが、
時の日本軍と慰安婦は(支援
団体など)がいうような(歴史)

卷之三

3

自尊心」が許さぬ過去

はなかつた。 人たちは押しかけ抗議となつてゐる」とになるが、この「協定」よりも歴史認識をめぐる眞力」という見方が許さないと、わざといつて書く。

訴を廃止したもののだつた。
しかし「協力といわれたの
では白黒心が許さない」とい

自尊心が許さぬ過去

のとたぬきむにた

た直接抗議はなく、歴ない」と委嘱まで」など、曲解しては、のり対日協力の問題だった。をめぐる韓国側の主張、非難の論評を掲載したため、改兵にじる慰安婦にして、を根本から覆つて、「元日改兵」の問題根本的、日本側によれば「誤り」として

体が集団で抗議文を持った。この抗議文については有力紙「朝日新聞」が論説欄の長文のコラムで、一端は必要発したのは日本統治時代における太平洋戦争参戦者慰問要求団などだった。彼らが最も反対したのは日本統治時代における軍事問題である。

として紹介されそれを不満非難して時勢女性活動家や抗辯独立運動家された「独島守護」の教な抗議訪問があった。選団体の「光復会」の幹部

第2部 歴史認識をめぐって ⑦

はじめスピーチ、音楽など「國」にあつてはいたるの
祭舞台での舌噺が目立つ。民である。」ソウル・黒田勝弘

2002. 3. 30. 東京

DV设计

モデル県めざす千葉



DV被害者にどう接したらいいか、研修を受ける職員三千葉市で

保護のため20室、24時間電話相談窓口

「配偶者暴力（DV）防止法」は四月から全面的に施行され、被害者の相談や保護などを行う「配偶者暴力相談支援センター」が都道府県に発足する。熱の入れようは各自治体でまちまち。DV対応では立ち遅れた県の一つといわれてきた千葉県の取り組みが、三にきて注目を集めている。

國保
良江

女性知事の 持ち味發揮

時間電話相談
相談のレ 参画課副主幹の浅野由美
について講演。防止のため している。千葉市内で今 大切さを痛感。保健婦や
に警察や弁護士会など関 月開かれたサポートセン 支庁の社会福祉課など、
係機関のトップによるネ ターの職員研修では、DV
シトワーク会議を立 DV被害者に接する可能
く V被害の事例研究が 性が高い人のための研修
ち上げ、有識者によ 行われた。参加した も行っている。

「女性に対する暴力対策専門部会」を設けた。関係機関には対応マニュアルの小冊子を配布し、県の男女共同参画課には警察からの派遣職員を含むDV対策チームを作った。千葉市にある県の婦人相談所は、昨年見へ職員教育も幅広いで、四月からセンタードV問題に詳しいお茶の水女子大学教授の戒能一で相談や保護に当たる職員。暴力による心的外傷後ストレス障害（PTSD）が、支援センターの運営の症状について講師は各自治体任せですかから説明を聞いた。力の入れ具合で大きくなり、DV被害者にどう接したらいいかななども突っ込んで話しがされた。千葉県は堂本さんが知事になり、政策に反映しているのが大きい。DV問題は

早期発見へ職員教育も幅広く

千葉市にある県の
婦人相談所は、昨年
十一月から二時保護
のための部屋三室を
三十室に増し、二十
四時間体制で電話相
談も始めた。行政の
取り組みを反映して
DV防止法の一部施

春防止法施行を機に、
設置)などに、支援
センターの看板を並べる
欲を露
だけ(「あそいとすると」といふ)。

2002. 4. 2. 東京

說

配偶者暴力

2002.4.14. 產卵

男の子に鯉のぼり、強そうな名前×

文部科学省の政策で、
興味ある子育て支援のば
シフレットは、ひたすら
や断のほりを意識的によ
るまるなど、エンダ
リード（社会的・文化的
な価値観の構築）について
講解をする記述が多
数載り込まれ、彼女を守
っている。男女共同参画指
導大臣の高田真理子閣下
高田（10月18日フレ
トの配達）は、既成しな
い」と強調を表明して
おり、文部科学省は配布
先への趣旨説明などを対応
を終了している。

文科省委嘱の子育てパンフ

意識否定　既往など歴のほりと武者人形
の名前「ひがみやの
のなま」、「赤いラッパ」
のなま、「100さんと呼
ふる」、「かわい」とほめ
の子だったら「用
大騒ぎ」とスケ「が
大騒ぎ」と名前「黒の
谷えり子未深く

主婦は「いい加減な女の人かまだいるんだな」と思ふ。日本の医師的見解は「女性の性器の発育が不全である」。日本では「女性の性器の発育が不全である」と思われる必要があるのか? と疑問を投げかける。

「妊娠過度」への疑惑

「黒い」は、「パンスト」だけではない。文部省科学省の検定に合格し、実験から使用され

「男女の生殖器の發育には「大きい」と「小さい」がある」とかども、解説する。という言葉を此例とした説明する詳しい山川によれば、天体の性愛のカッフルを、家でござだ」と話す。医師の意見は「女性の性器の発育が不全である」と改められる事だ。

出合氏は「男女の生殖器には必ずして、何でも家庭といえない理由はない」との意味には、「記述が不足しており、家庭について理解したが、実際は大切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後悔がついたばかりの、ジョンソンの「フリー教育の行き過ぎ」が、「生活をともにする今後、の園舎を造り及ぼす」と述べた。

行き過ぎ 性差解消

性差解説

2002. 4. 23. J. 7

U.S. child sex abuse scandal 'is like Sept. 11' for church

BOSTON (AP) Cardinal Bernard Law told parishioners that the sexual abuse scandal was a "wake-up call" for the Catholic Church and said "immediate and decisive changes" were required to stem a crisis that "some have likened to Sept. 11."

Law, who has been at the center of much of the growing criticism over the church's handling of sexually abusive priests, appeared in public Sunday for the first time since Easter as he and America's other cardinals prepared for a rare meeting this week at the Vatican.

The Vatican needs to understand that the abuse scandal is "a very serious issue undermining the mission of the church," he said.

"Some have likened the situation ... to last year's Sept. 11 tragedy, a crisis which shocks the heart and soul and which must spark immediate and decisive changes in order to prevent a possible recurrence in the future," Law said.

The Roman Catholic cardinals of New York, Baltimore, Miami and Detroit had messages of encouragement and explanation read or played to their congregations Sunday. Cardinal Theodore McCar-

rick of Washington spoke on television about his hopes for the meeting in Rome, saying it should give Pope John Paul II the chance to convey his concern for the victims, his disappointment in letting down faithful Catholics, and his pain over the tarnishing of the church's image and its good works.

The pope also discussed troubles confronting the church. Speaking to Nigerian bishops about the church's need to safeguard celibacy, the pope said they are obliged to investigate and take action against churchmen engaged in scandalous behavior.

"Behavior which might give scandal must be carefully avoided, and you yourselves must diligently investigate accusations of any such behavior, taking firm steps to correct it where it is found to exist," he said.

When they meet with the pope and other Vatican officials Tuesday and Wednesday, the cardinals will be looking for guidance and backing o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whether the church should ever consider reassigning sex offenders and creating a policy for reporting abuse claims to police.

Lifting the veil on sex abuse

Critics say child molestation rife in Catholic Church

By SHAWN POGATCHNIK

DUBLIN, Ireland (AP) — Across the globe this holy season for Christians, a troubled Roman Catholic Church is expressing repentance and, increasingly, being forced to pay for its sins.

From Australia to Ireland, church leaders have been criticized for protecting priests who sexually abused boys and girls without punishment, often for decades. The record has left the church's moral authority weakened and its finances vulnerable to potential lawsuits from tens of thousands of emotionally scarred victims.

In several countries, church leaders have published blueprints for reform, overhauled their re-

cruitment and scrutiny of seminarians, and promised to report abusive priests to the police instead of transferring them to another parish. More than 100 priests have been imprisoned, scores more forced to issue apologies and resign.

Pope John Paul II, in his most detailed public comments on the subject, said in his pre-Easter message that the church "shows her concern for the victims and strives to respond in truth and justice to each of these painful situations."

Critics, led by victims of pedophile priests, say Catholic leaders are responding grudgingly and with the preservation of their own position principally in mind. Others say the church's response is

scattershot with too little leadership from Rome.

"The church is trying to squirm away like a snake. They have more to hide than they would have us believe," said John Kelly, leader of Irish Survivors of Child Abuse.

His 300-member group rejects as inadequate a landmark deal between Ireland's government and bishops to compensate an estimated 3,000 victims from church-run industrial schools and orphanages.

Kelly, who says he was repeatedly raped and whipped by priests in a rural school in the mid-1960s, would rather get the only priest still alive thrown in jail than receive a single cent in compensation.

"Anyone they feel they can buy off, they do it. But I want vindication," Kelly said.

Most Americans' attention this year has focused on the case of one Boston priest, John Geoghan, accused of abusing more than 100 children while being shuffled from parish to parish.

But similar stories have shocked congregations in Australia, Britain, Canada and France. Analysts say it's doubtful that any major Catholic community has been spared, although in many countries past abuse remains a secret.

Even in predominantly Catholic countries where pedophilia has yet to emerge as an issue, the church's unbending policy on clerical celibacy is under assault from other sex scandals, often involving the homosexual harassment of young priests and altar boys.

The latest high-profile casualty came Thursday in the pope's Polish homeland, when Archbishop Juliusz Paetz resigned after being accused of making sexual advances to priests and seminarians. Earlier this month a Florida bishop resigned after admitting he molested a teenage seminarian in the 1970s.

Nowhere has lifting the veil on sex abuse caused more trauma than in Ireland, an overwhelmingly Catholic country long renowned for exporting priests worldwide.

Ireland's equivalent to Geoghan was the Rev. Brendan Smyth, who preyed on young boys over a 40-year career that took him all over Ireland and to parishes in the American states of North Dakota and Rhode Island. His case, revealed in 1994, provoked the collapse of an Irish government and a cascade of allegations against other priests.

Smyth died in prison in 1997 af-



AFTER THE FALL — Boston's archbishop, Cardinal Bernard Law (right), gestures as he conducts a Good Friday Mass at the Church of the Holy Cross in Boston, March 29. Around 200 protesters gathered outside during the service to pray for the victims of abuse by members of the clergy and call for Law's resignation over his alleged mishandling of a serial pedophile priest. AP Wirephoto

of children. But the leader of his Norbertine religious order, Monsignor Kevin Smith, revealed the church's instinct for protecting its own when in his own resignation letter he insisted Smyth had been repeatedly transferred to deter him from forming "attachments" with children.

While church officials have vowed to no longer let child molestation go unpunished, a study published this week in the monthly *Jesus magazine, America*, suggests that a surprisingly high percentage of Catholic officials worldwide are aware of a sex abuser in their midst.

The Rev. Joseph Guido, a Dominican priest who is an assistant psychology professor at Providence College in Rhode Island, said he had surveyed 81 church officials from one globally organized Catholic order.

"Church leaders' direct knowledge of sexual abuse was more widespread than had been anticipated," he said.

His research found that 83 percent of North American officials surveyed knew about abuse allegations against at least one colleague. In the Caribbean and Central America, the figure was 43 percent, in the rest of the world about 33 percent.

"Sexual abuse of children by priests is a problem for the church everywhere," Guido said.

confront allegations of systemic abuse in Catholic institutions.

In 1993, about 200 former residents of Australian schools run by the Christian Brothers, an Irish teaching order infamous for its harsh discipline, filed suit alleging they were repeatedly raped and beaten by brothers. The church in 1996 settled out of court for \$2.6 million, a deal that left each of the victims with \$2,000 to \$7,500.

Similar grievances are still working their way through Canada's courts over decades of abuse at a closed Christian Brothers orphanage in St. John's, Newfoundland.

The province's government paid \$7 million to victims in 1996, shortly after the Christian Brothers' schools network in Canada filed for bankruptcy when faced with massive lawsuits.

The order today faces \$50 million in outstanding claims from more than 120 victims and the Newfoundland government, which hopes to recoup money it paid out.

In France, nearly 30 priests have been convicted over the past decade of pedophilia. One, the Rev. René Bissey, received an 18-year sentence after being convicted of raping or molesting 11 boys in the mid-1990s, and the priest's bishop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for keeping him as a secret, the first such conviction worldwide. But French courts have dismissed other cases of al-

ing that it is too long ago.

In England and Wales, 21 Catholic priests were convicted from 1995 to 1999 for abusing children, and the archbishop of Westminster, Cardinal Cormac Murphy O'Connor, has been accused of allowing abuse by one priest, Michael Hill, to go undetected. On Thursday, Hill was charged with sexually assaulting seven boys and girls between 1960 and 1989, after serving more than three years in prison for nine other assaults.

But the British church has also taken the most comprehensive look in Europe at what's gone wrong. A 2001 report by a former appeals judge, Lord Nolan, said all church officials, including volunteers, should be subject to police checks and any allegations of abuse investigated swiftly.

In Ireland, church and government leaders have issued a string of apologies and, in January, unveiled a compensation package for people abused in schools and orphanages, most of which are long closed.

The church agreed to pay the government \$10 million, mostly in donated property; and the government in turn would establish a board to pay settlements projected to run possibly four times higher. Anybody who accepts compensation by this route must drop personal lawsuits.

The Irish church has also ap-

pealed to encourage people to report abuse to a network of "child protection delegates" — all of them priests — a move that is being copied in other countries.

"Only in the last 20 years have we seen a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Ireland, and people have begun to talk openly about child abuse," said the child protection officer, Paul Bailey, a former veteran social worker who took this new post last July.

Bailey conceded it was "questionable whether people know my office is even here." He said information on how Catholics could report abuse generally wasn't posted on church bulletin boards, nor had his office referred a single new case to police.

He is also advising priests on how to protect their own reputations.

"Priests should observe common-sense rules for ensuring they do not put themselves in situations where they can be accused," he said. "A priest now should never be in a room with a child on his own. We're encouraging priests to hear a child's first confession on the altar, to have the child walk up the steps to the priest where everyone can see."

He said this advice "annoyed and frustrated" some priests, who consider being friendly with kids a favorite part of their jobs. "Their understandable reaction is,



THE EVIL AMONG US — Pope John Paul II arrives in St. Peter's Square at the Vatican prior to celebrating his outdoor Easter Mass, March 31. In a pre-Easter message, the pope said that the church "shows her concern for the victims but cannot shirk her mission and strive to respond

2002. 4. 25. J. T.

Catholic priests in Bahamas abused kids

NASSAU (AP) The Roman Catholic leader of the Bahamas admitted Tuesday that priests and lay workers here have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said perpetrators have been dismissed.

Archbishop Lawrence Burke called the abuse "insidious and sinful," but refused to provide any details, including when cases had occurred and how many priests or workers had been punished.

"We've had cases, and we've handled them according to the policy," the Jamaican-born archbishop said in a telephone interview. "But yes, absolutely, people have been dismissed. That includes priests."

As Burke made the comments, Pope John Paul II told U.S. cardinals meeting in Rome that there was no place in the priesthood "for those who would harm the young," saying sex abuse by priests was both a crime and "an appalling sin in the eyes of God."

The pope made his toughest

statement since allegations of sex abuse by priests began pouring out in January, shaking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the United States.

Burke, who is set to attend the conference this week, called a news conference Monday to answer reporters' questions. He told one that the church should try to "understand whether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a life of celibacy and this deviant behavior."

Burke reassured people that Catholic schools and churches were safe for children, and released copies of a policy he said the church in the Bahamas adopted in 1994.

"The archdiocese will not tolerate pedophilia or any form of child abuse by any clergy; religious, lay person, whether an employee or volunteer," the eight-point document states.

It says the church would act promptly to investigate allegations, and that confirmation would lead to the permanent removal of the offender

from his ministry.

It also says the church would abide by Bahamian law by reporting accusations to the police and assisting in investigations.

Burke said that complaints had been registered with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But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Bernard Turner, said he has worked in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since the 1980s and knew of no complaints filed or prosecutions of Catholic priests or laymen.

The church's policy said it examined the background of its workers to ensure new priests and staff had never faced sexual allegations. It also said it would help rehabilitate offenders and support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aid in their emotional and spiritual recovery.

Priest in rape case

WARSAW (AFP-Jiji) A Polish priest is being investigated for allegedly beating up a 60-year-old man, raping him and then threatening to kill him if

he revealed the incident, prosecutors said Tuesday.

The 44-year-old Roman Catholic priest, who has not been named, stands accused of raping the man following a boozy dinner after first of all beating him up, spokesman Romuald Sitarski told the PAP news agency.

The priest faces a 10-year prison sentence if convicted, prosecutors in the town of Tomaszow Lubelski said.

The man was "knocked to the ground, received several kicks to the thorax and a fractured rib," the spokesman said.

The incident was reported to have occurred in January in a flat belonging to the elder man, who was apparently a friend of the priest.

The priest is also accused of "threatening to kill the victim if he revealed the incident," according to the report.

The priest is not being held in custody, but has been banned from leaving the country, the spokesman added.

2002.5.3. 痛経

エイズの原因となるHIV
(ヒト免疫不全ウイルス)に感染しても、数種類の抗レトロウイルス薬を組み合わせて使うと、体内でHIVが増殖するのを止め、エイズの発症を抑えることができる。だが、長く使っていると個々の薬に対する耐性を持ったHIVが築場して、薬が効かなくなる。副作用も出でてくる。

こうしたことを一つ克服してエイズ治療は進歩していくのだが、途上国の場合、それだけでは問題は解決しない。そもそも治療の前提となる保健・医療基盤が整っていないれば、抗レトロウイルス薬ではないからだ。国連エイズ特別総会のコミットメント宣言は「薬剤耐性が生

►17

じるリスクを減らすために注意を駆け巡る二十一世紀の世界で、年から実施する。ば、各国の代表が「それじゃ困る」「いくらなんでもこの表現は、貧しい国の悲惨な現実は先に、HIVに感染しやすくなる」「いくらなんでもこの表現は、HIVに感染しやすくなる」とさんざんもみあつて、可能な範囲で最も高い基準のHIVを防ぐ。薬があるのに手に入らないので死んでいく。そんなHIV/AIDS治療を緊急に提供して、「よくよう努力する」と指摘する。つまり、抗レトロウイルス療法を選択肢の一つではあるが、「おれたちは開発、経済的な不安定、貧困、女性に対する自立支援の欠如、簡潔で適切な訳語が見つかなくて、唯一の選択肢ではなく、るほど、高度情報化大衆社会の教育の欠如、社会的排除、読みづらさなどに日本語にするときには「可能な範囲」のHIV/AIDS治療は「するところはないようだ。書きができない」と、差別化しやすくなるような立場に個人

HIV 感染の社会的要因

V/HIV/AIDS治療であるとは到底考えられない地域や國もたしかんある。だが、そうだからといって、途上国に抗レトロウイルス薬を供給するのは無意味だと切って捨てる」ともできない。ヒト、モノ、力、そして何よりも情報が、孤児およびHIVに感染した人々のレベルで、HIV/AIDS治療に働きやすい」とはどしているか、影響を受けている。HIV/AIDSの流行のインパクトに焦点を当てた多部門の間にまたがる脈で考える必要がある。(宮田一雄)

バルナラブル論争

アルタイムに近い状態で地球上〇三年までにまるで、二〇〇五

忍耐や夫からの暴力、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DV)の被害にあつた女性たちが、自らの体験を生かして被害者支援を行う「DVサポートセンター」を設立した。警察や裁判所などへの付き添いサービスや

就労支援講座などを通じて、孤立しがちな女性の心と生活を支える。

2002.5.4. 記念

DVサポートセンターは東京都内に事務局を置き、三月中旬に設立された。四月から本格的に活動を始め、既に口コミで付き添いサービスの依頼が舞い込んでいる。今後、チラシなどを通じて利用を呼びかけるところ。

活動内容は①被害女性からの依頼を受け、様々な場所に同行する付き添いサービスや、権利擁護活動②新しい生活を始めるための仕事探しのノウハウを伝える就労支援講座の開設③電話相談やサポートグループの運営——など。

付き添いサービスは、まず被害女性からの依頼を受付電話(070-5201-0997)月木金曜日の午後七時九時)で受け取る。事情を聞いた上で、メンバーや警察への被害の訴え、裁判所への離婚調停などの申し立て、行政機関や病院に付き添う。利用料は一回千円(初回は会員料五百円)が必要、交通費別)。当面は東京近郊を対象にしている。就労支援講座は間もなく開講する予定だ。

運営委員会は約十人で、金園婦人相談員連絡協議会会長の

原田惠理子さんが共同代表。半数以上は、DVの被害を受けた経験を持つ三十代から五

十代の女性で、試練を生き抜いたという意味でサバイバーと呼ばれる。同センター共同

代表の一人の森望さん(51)

は、夫の暴力に耐えかねて小学生の子どもを連れて八年前に家を出た。警察や裁判所、市役所などの手続きを一人で不慣れな交渉で書いたこと

した。「夫に思つかるかもしない」とも。それないと、夫ががんばにだれかがいてくれたらと、で外に出るのさえ怖かった。痛切に感じた」と話す。

森さんはホームヘルパーを始めたために、夫の暴力に耐えかねて、夫が喜ばず、傷つくことも。そばにだれかがいてくれたらと、痛切に感じた」と話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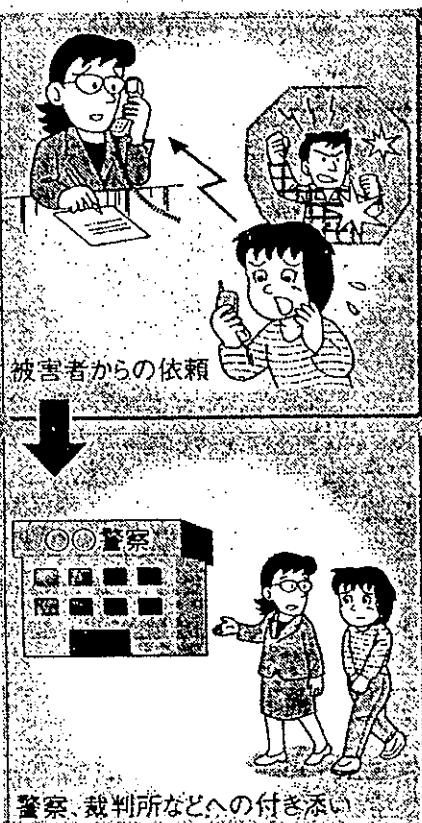
しながらDV被害者の自助グループに参加。被害者を支援するサービスの必要を感じ、仲間と設立にこぎ着けた。

運営費はすべてカンパなどでまかなっており、台所事情は厳しいが、メンバーは「被害にあった人がさらに嫌な思いをしないでほしい、寄り添いたい」と言う。

体験者が心のケア

就労講座も

都内にサポートセンター



被害者からの依頼



警察、裁判所などへの付き添い

犯罪被害者支援に詳しい武藏野女子大教授の小西聖子さんは、「被害を受けたからこそ分かる思いや知識があり、サバイバーが支援にかかるのは心強い。公的機関ではできない独自の試みとして意義がある」と話している。

2002.5.6. 產經

解答乱麻

「こうした男女無区別主義は恐ろしい弊害を生む危険がある」と

男女混合名簿が急速に広がりを見せてゐる。県の市町村の教育委員会が率先して指導している例も少なくない。

東京女子大教授

ジエンダーフリーの害毒

林道義



つてアイデンティティが形成される。もちろんそれらの因になりかねない。さらに、が妨げられると、心は不当なストレスにさらされる。必ず中心には、自分とはこうう異性との関係がうまく作れな人間だという確信があり、それが大切である。

こういう同性内の反感をなくす帰属感の集まりが、アイデンティティの本質である。障が出るおそれがある。予想中でも、自分は男または女、される障害は、心理面から本能行動まで多岐にわたり、深く、の健全な心の発達を阻害する

つて、無気力や閉じこもりの原因になりかねない。さらに、が妨げられると、心は不当なストレスにさらされる。必ず女性の運いを否定する教育をするに生物として子孫は、子供たちの心に不自然な悪い影響が出るのである。

しかし、同性愛に傾くと、男女の運いを否定する教育を残すために必要な行動に支障がある。予想される言わざるをえない。

ジェンダーフリー教育は、

たという自己意識はアイデンティティの基礎であり、た一刻である。

いへん重要である。

」のままジェンダーフリー犯罪と言つべきである。

いう帰属感。また自分は男なのか女なのか、どちらなのか、という帰属感。そのほかに日本人という帰属感。故郷や学校や会社への帰属感など、多くの帰属感の累積による。

子供は三歳くらいから始まって思春期までには、自分が男または女の特性を持つていることを意識的に確信し、それがなりの行動基準が確立されないなければならない。さもなくとも、価値観や考え方の面で自分に自信が持てば、これが揺らいで定まらない。性同一性障害に陥るばかりでなく、自我そのものが健全に形成されない恐れが出て来る。

これを防ぐためには、男女の区別を科学的に正しく教える。その上で両性の分類と協力の正しいあり方について考えさせることで、男女の区別を正しく意識させることはむしろ必要である。

教育はきわめて危険である。混合名簿などのまぜこぜり、混合名簿などのまぜこぜり、

「配偶者からの暴力防止及び被験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以下「防止法」)に準づき、保護命令の適用第一号となつた女性の保護期限が切れ、女性は再度申立てを希望して

いる。だが、公証人役場が一万一千円の費用をかけて審査依頼書を作成し、裁判所に申し立てをすれば、裁判所が求めるほど煩雑な手続

めが必願で、被験者の負担が重

い。

メディア戦略局映像部
松本 美奈

2002.5.6. 読売

昨年十月に施行された同法には、夫が妻を殴るなどのDV(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被害者を守る新たな手段として、保護命令が盛り込まれた。被験者からの申し立てを受けた裁判所が加害者に対して出す命令で、被験者本人への六ヶ月間の接近禁止と、同居住宅からの一週間の退去の二種類がある。

保護命令の適用第一号となつたのは、大阪府在住の四十年代の女性。申立書などによると、夫は六十代の元公務員。約二十年前に結婚して以来暴力を受け続け、けがが絶えなかつた。法施行を待つて昨年十月、娘二人と府立女性相談センターに駆け込み、保護命令を申し立てた。大阪地裁は数日後に退去命令と接近禁止命令を出していく。

女性によると、夫からの電話が頻繁にかかる。今も嫌がいやが続いているという。女性は自宅に電話を設けていないが、夫は女性の職場や実家、娘の携帯電話などに連絡して、居場所を教えるように迫った。担当弁護士の警告を受けても、嫌がらせはなくなりず、恐怖心は募るばかり。先月末、六ヶ月間の接近禁止命令の期限が切れたため、再申請を行った。

この事例は、施行前から指摘されてきた法の問題点を浮き彫りにしたといふのが、保護命令期間の短さだ。DVAの原因は複

5/6 读売

施行半年で問題点が明確に 保護命令の運用に見直し求める声多く

確かに根深い、しかも六か月間で解決できる問題ではない。法律は「接近禁止命令について再度の申し立てができる」としている。だが、公証人役場が一万一千円の費用をかけて審査依頼書を作成し、裁判所に申し立てをするのが求めらるなど煩雑な手続

めが必願で、被験者の負担が重い。

また、同法は離婚する「接近」を禁じてゐない。そのため加害者は電話や「アクセス、メールなどを使って近づいてくる」とが多く、保護命令も規制できる行為を現実に即して見直すべきだ。

保護の対象が被験者本人に限られ、実家の親戚やうだいや一緒にいる子どもが対象がらはずかしいのも問題だ。子どもを優遇のきっかけにしようとする加害者が少なくないからだ。

DVA被験の実態に詳しい戒能民江・お茶の水女子大教授(法社会学)は、「保護命令の効力は、離婚調停や裁判、子どもの面接交渉など一連の手続きが終わまで継続的」とが望ましい」と指摘する。内閣府の有識者アンケートでも、「申し立て手続きの簡略化」や「被験者の子供への接近禁止」など、保護命令の運用の見直しが必要だと、四割が答えていた。

最高裁によると、昨年十月から今年三月末までの約五ヶ月間で三四九十二件の申し立てがあり、一百八十八件の保護命令が出された。

大阪の女性のケースをはじめ各地裁で迅速な決定が下され、命令を無視した夫が全国で既に五人逮捕されるなど、保護命令を巡る裁判所などの対応が、今まで沈黙してきた被験女性を勇気づけていたとは評価したい。だが、施行半年たって、問題点も明確になってきた。法律のより柔軟な運用に向けて、早期の改正が望まれる。



国際平和旅団で
インドネシアに进入する

野田 真紀さん

世界の紛争地で非暴力の市民活動家を丸腰で護衛、当事者間の対話の場を作り出す非政府組織（NGO）の「国際平和旅団」（本部：日本）。日本人女性初のボランティア団員としての西初め

人権を研究。これを生かして「旅団活動をするつち「旅団」を知った。昨年6月、カナダで非暴力のあと、分離独立運動でトレーニングを受け合

いことから引っ越しが多いからかな」

シャカルタで語学研修

地の人々を対象に、紛争

解決の手法を教える学習

など、分離独立運動で

混乱するインドネシア西

会を開く。「外国人が脅

かすたからかな」

暴力は振るわれ

ないのです。問題解決は

りたいことをやつたら

娘の挑戦。父親から「や

うは苦っても、一人

立を守ります」

わかる。

神奈川県出身。法政大学経営学部卒。

00年12月、米モント

レー国際研究所院を

修了。26歳。

この付録、海外出張記

危険？ 行動せずに 後悔するのはいやなの

現地の人たちの力で」とい。でも、絶対に親よりいうのが旅団の立場。中立を守ります」

先に死ぬな」と諭された。両親の心配顔が痛いほど

わかる。

イングリッシュに向むかう。
「昨年10月のつむらが、
直前にテロ事件が起き、
もういよいよ出発のこだ」
出国の手渡式で、親の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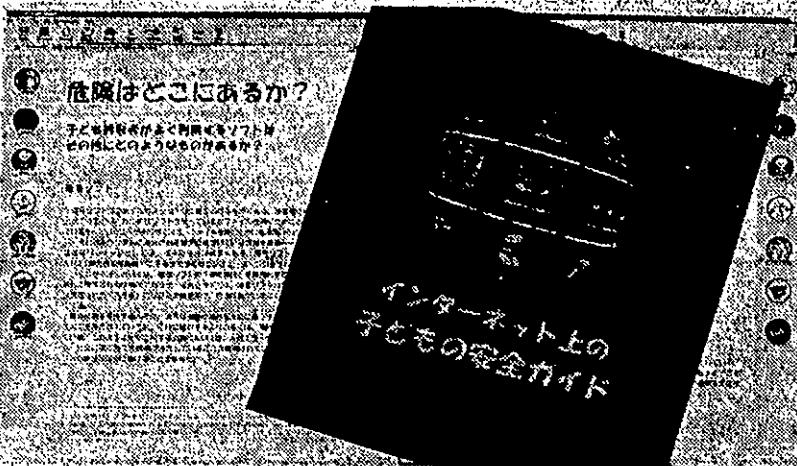
2002.5.9. 火日

パソコン・ネットに悪質画像

児童ポルノから子供たちを守るう

NGOが「安全ガイド」

日本語版刊行



危険はどこにあるか?

子どもたちがよく利用するアート
との関係のとどけいわゆる「アート

- ◆各機関への連絡先
◆「ECPAT／ストップ子ども買春の会」(☎03-5338-3226)。日本語版(変型A:4判48P)の申し込みは同会(送料は自己負担)。ホームページ(<http://www.iajapan.org/ecpat/20020327press.html>)からもダウンロードできる。
- ◆「インターネット協会」の「セーフティ・オンライン」はホームページ(<http://www.iajapan.org/rating/>)からもダウンロードできる。
- ◆「インターネットホットライン連絡協議会」(☎03-3452-6420、<http://www.iajapan.org/hotline/>)。

インターネットに流れる悪質な画像や児童ポルノから子どもたちを守るうと「インターネット上の子どもの安全ガイド」がこのほど刊行された。写真:NGO(非政府組織)国際ECPAT(エクパット)(本部・タイ)が昨年、英語で作成した冊子の日本語版。「日本人も理解」と翻訳、出版は英國政府が資金協力した。(明珍美紀)

情報を選択

このサイトにはスクリーンショットがあります。「暴力写真があります」「暴カジンがあります」など、情報の発信者あるいは第三者機関が、インターネットを設けて市民からネットに流れる内容を一定の基準に従って格付け(レイティング)し、それをもとに受け手が見たくない情報を遮断できる仕組みだ。日本でも各種フィルタリングソフトが発売され、インターネットの児童ポルノは、性的搾取を受ける児童の問題だけではない。パソコン操作する子どもがそれ自身にしており、児童ポルノに近づく危険性もある。そこでガイドが勧めるのは、インターネット協会が、日本語版の「セーフティ・オンライン」を策定監修した「ECPAT／ストップ子ども買春の会」共同代表の宮本潤子さん(48)は「子どもたちがインターネットを安心して有効に使えるよう、保護者だけでなく教師にも必要な知識を身につけてもらえば」と話した。

学校では

市民の協力も必要だ。イギリスでは「インターネット監視財団」がホットラインを設けて市民からネットに流れる内容を一定の基準に従って格付ける。日本では「インターネットホットライン連絡協議会」が、あわしいサインを見つけた場合の通報など、情報提供を行っている。

受信者が情報を選択する定している。「フィルタリング」システムの活用だ。

●ホットラインで協力

2002.5.10 J.7

Asians flock to Net for porn: report

SINGAPORE (Reuters) Asian Internet users flocked to pornographic Web sites in March, with Singaporean executives and South Korean students topping the list, a four-country report by NetValue shows.

Some 10.7 million South Koreans headed to adult sites in March, a hefty 72 percent jump from the year before, the Internet measurement firm said Thursday.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all saw a 30 percent to 40 percent jump in the number of visitors to the sites. In Taiwan, 2.5 million unique users clicked on porn sites, with 715,700 in Hong Kong and 373,100 in Singapore.

Given Singapore's "strict law of enforcement against all sorts of vices, the Internet offers a convenient source to other unorthodox materials," NetValue Sales Director Alan Choo said.

Asians also spent more time at porn sites.

Internet surfers in Taiwan were glued to adult material on their screens for an average of 90 minutes in March, Hong Kongers spent 73 minutes, Singaporeans 66 minutes, while Koreans were captivated for just half an hour.

Students across the four countries were also spending more time on porn and downloading more Web pages, NetValue said.

2002.5.10. J.T.

Cardinal Law admits knowing of abuse in '84

Los Angeles Times

BOSTON — Cardinal Bernard Law on Wednesday testified that he knew as early as 1984 that John Geoghan — then a priest in the Boston Archdiocese — was having sexual encounters with young boys.

"I was aware that there was involvement because ... of having removed him out of one parish and putting him between assignments before sending him back to another," Law said in an extraordinary, daylong deposition at Suffolk County courthouse here.

Testifying in a civil lawsuit brought by 86 alleged victims, Law conceded that he recognized his signature on an attachment to a 1984 letter from a woman who said Geoghan had abused her sons and nephews.

But again and again Wednesday, the cardinal said that he had no recollection of the actual letter from Marge Gallant.

"I found that to be absolutely amazing," said Mitchell Garabedian, an attorney for the 86 alleged Geoghan victims.

"He didn't recall the letter even though the envelope said: 'Urgent,'" Garabedian said after Wednesday's ques-

tioning concluded. "He just didn't recall Marge Gallant stating that her children were being abused."

It was Garabedian who forced the unusual interrogation of the nation's senior Catholic prelate. After the Boston Archdiocese pulled out of a \$15 million to \$30 million settlement with his clients last week, Garabedian demanded an immediate opportunity to depose the cardinal.

Law, who on at least four other occasions has failed to appear for scheduled depositions, arrived by police escort Wednesday in a silver limousine with darkened windows. A small crowd waited outside the courthouse in the city's financial district, some carrying protest signs aimed at the cardinal.

Diocesan lawyer Wilson Rogers Jr., one of several attorneys who accompanied Law on Wednesday, declined to comment on the day's proceedings.

In his black suit and clerical collar, Law looked grim as he entered the courtroom. The cardinal has rebuffed calls for his resignation in the face of a clerical sexual abuse scandal that has shaken the Catholic Church in the United



CARDINAL BERNARD LAW (second right) leaves Suffolk County courthouse Wednesday. AFP-JIJI PHOTO

States and around the world.

The crisis erupted in January when the Boston Globe published documents showing that church officials knew of Geoghan's long pattern of molesting children. Rather than removing him from the

priesthood, the records revealed, church leaders simply placed Geoghan in new parishes — where he continued to work with children.

Geoghan was convicted in January of a single count of child molestation. He is serv-

ing a 10-year prison sentence. The scandal escalated in April when other records were made public, showing that the church also had protected the Rev. Paul Shanley, an alleged pedophile. Shanley, arrested last week in San

Diego, was arraigned here Monday on three counts of child rape.

The Boston Archdiocese has provided prosecutors with the names of close to 100 priests accused of sexual abuse over a 40-year period.

2002.5.10 朝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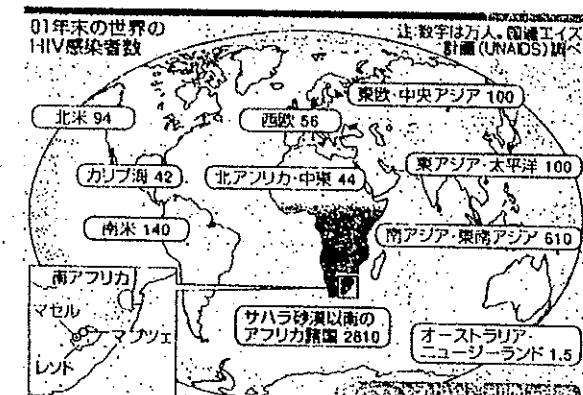
レソト北部の村で幼い子どもたちの世話をする祖母たち。両親のエイズ死で、祖父母が子育てに復帰している=福田伸す

エイズ禍と闘う 最前線に女性

アフリカ・レント

南アフリカの中にボツンとある人口約200万の小さな王国レソト。成人の20%以上がエイズウイルス(HIV)に感染、多くの死者が出ている。こうした中で市井の女性たちが在宅の患者を支える組織をつくり、予防のため女性用コンドームを使う運動を進めている。軍隊なども対策に乗り出した。ロンドンに本部のある非政府組織(NGO)国際家族計画連盟(IPPF)の現地視察に同行した。(マセル=福田伸生)

患者支援ボランティア・予防啓発



「天國の王國」と呼ばれるレソト。全土が標高千メートル以上、面積は約3万平方キロ。日本の四国の大約1.6倍だ。労働人口の約4分の1が南アで出稼をしている。

首都マゼルの北約90キロ離れた女性グループが集まっている。

山道を、そろひの日ひやシャツを着た女性グループが進んでいく。

体調を崩したパトリシアさんたちが自宅前で座り込んでいた。夫は95歳、エイズで亡くなっ

た。自身も感染がひどく、起きあがるのがつらい。口を開くと、かび

性の漫渴で真っ白だった。

女性たちばかりがひ

どく、起きあがるのがつ

らい。口を開くと、かび

性の漫渴で真っ白だっ

た。自分も感染がひ

どく、起きあがのがつ

らい。口を開くと、かび

性の漫渴で真っ白だっ

た。自分も感染がひ

どく、起きあ

2002.5.12. 説亮(タ)

オレンジDV)に苦しむ女性の「駆け込み寺」、NPO法人「かながわ・女のスペース・みすら」(横浜市)が十周年を迎えたのを機に、これまでの活動を一冊の本にまとめた。民間シェルター(緊急避難所)の最古参として、相談や支援に当たってきた経験を広く伝えていきたい」という。

英語の「MS(ミズ)」が、寄せられる相談に対処と日本語の接觸願うを

成した「みすら」は、働く女性の悩みに電話で応じる

女性のための相談

として、一九九〇年にスタートした。夫の暴力に悩むタイ人女性を保護したのがきっかけで、三年後にシェルターを開設。昨年四月には、神奈川県と協力して「協働の危機」(明石書店、千葉見と仕事の両立支援など)を発行しました。性からの相談が多かつたので

会が急増しているという。

ポートのノウハウ」「行政機関との協力・連携」など

を、実例を交えて紹介している。またDV防止法が施行されたが、被害者の支援は、活動実績を重ねてきました。現行制度下で可能な支援や問題点、課題もまとめた。

各地のグループから問い合わせ寄せ寄せられる。

10年間の記録 DVから保護

本活動をシェルターハウス活動

題意識を深めていきました

た」と、代理理事の高原啓子さん(63)は振り返る。

こうした要望にも応え、十年を超えた活動を振り返ると、「最初は離婚問題や、これまで受けた相談は七千件以上。以前は外国人女性が多かったのですが、相談が多かつたの

アドバイスになれば」と福

原さんは話している。



DV被害者支援のノウハウも、実例を交えて紹介している

(夕刊) 14.4.16

求人の見走路

37年目の成田

知の紙一枚。これが民惱んだ
主手義か……」と反対運動、機動隊との力の対決
動へ。デモや集会に参加に徒歩感が募った。「78
しながら人々と畑を耕し年のは開港で自衛がなくなり
た。『土地を売らないの』つた世間からは工事だ。
が百姓の運動」と。でも「だって」。支援団体との

交流が生んだ決断

川畠平さん(73)は昨年の「香港決定」の66年、歳暮の毛配伝票を記者に、計画地に兄(故人)と自見せた。「達田人・村山 分の畑5・1分」と、富市・品名・ポンカンが組み込まれた。「(通「そう、元首相の……」)。
成田市天神峰地区の反対派農家たつた7年前、土地を売却した。「限界だった。畑を売るのは農民の屈辱だ」。計画地内の居住農家の319番目。認定並行滑走路東現につながった「決断」の陰に、当時の草相との心の手紙を見る小川畠

①「成田」は誠意が必要だ」と語る村山富市元首相(深町郁子写す)②「謝罪され気が楽だ」と政府からの手紙を見る小川真平さん=石井謙写す



を」。村山首相と龜井静一は、小川さんは懲り自適。香運輸相から「一方的な空港づくりが苦しみを与えた。申し訳ない」と信頼された。小川さんは、「なるんでは……」

「月、手紙を出した。「反
対派のレッテルを張られ
疎外された。民主主義と
は何か、納得できる回答
を分かるのです」と95年、NO活動で成田空港が
ペトナムに向かった際に
「辻走路オープン」の標
板に小川さんの名前
と感謝を抱いたといふ。

山首相が登場。「民の心」の信頼関係を国が否定したのが成田闘争。せめて情理を尽くそうと。今もサツマイモを送ってくれる。ありがたい。今冬、

真っ暗になつたよ。せめ、「気が楽になつた」と連れて、余生は普通に暮らした。動を終結した。

卷之三

2002.4.23. J.T.

Koizumi, Kawaguchi briefed on closure of sex slave fund

Former Prime Minister Tomiichi Murayama on Monday briefed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and Foreign Minister Yoriko Kawaguchi on the discontinuation of compensating World War II sex slaves under the Asian Women's Fund, according to government officials.

Murayama issued separate reports to Koizumi and Kawaguchi on the May end of the AWF project that has provided "comfort women" with financial compensation, the officials said.

During his meeting with Kawaguchi at a Foreign Ministry facility, Murayama requested continued support for a separate project that seeks to provide the women with medical and welfare assistance.

Kawaguchi voiced appreciation for the organization's efforts and assured Murayama that the Foreign Ministry will continue to support its activities, the officials said.

The project is aimed at providing former comfort women in Indonesia with social welfare services, such as new residential facilities.

It also seeks to enhance, via

the provision of various goods and services, the living standards of women in the Netherlands who suffered incurable physical and psychological wounds as a result of sexual slavery.

The AWF's board of directors decided in February to discontinue its "Atonement Money" program, through which it has paid ¥2 million apiece to South Korean, Philippine and Taiwanese applicants.

As of early April, 236 women had received payments, according to AWF officials.

The fund was established in July 1995, based primarily on donations from the public.

It ran into difficulty after the payment program was inaugurated in South Korea in January 1997, with many former sex slaves reportedly refusing to accept money from the fund in lieu of an official apology and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Seoul, which has also provided former comfort women with financial aid, asked the fund to cease its payments in September 2000.

2002.4.23. 神奈川新聞

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
アジア平和国民基金」の村
山市理事長（元外相）は
二十二日午後、小泉純一郎
首相、川口禎子外相と個別
に会談し、五月一日に元從
軍慰安婦への償い金支給事
業が打ち切られるのを前
に、これまでの活動内容な
どを報告した。

村山氏は外相との会談
で、償い金支給事業後の活
動について「医療、福祉事

業は継続するので外務省の
応援をお願いしたい」と要
請。外相は基金の活動を高
く評価し、「償い金事業は一
段落するが、引き続き協力
していかない」約束した。
インドネシアなどでの高齢
者向け福祉施設建設や、医
療活動などを重点に活動を
継続する予定。

女性基金は國民からの募
金などを基に一九九五年七
月に設立。韓国、フィリピ
ン、台湾の元従軍慰安婦を
対象にした償い金支給事業
では今年四月現在、二百三
十六人に総額四億七千百
万円が支給された。しかし、
から償い金の支給をやめる
よう申し入れがあり、今年
二〇〇〇年九月に韓國政府
が決まった。

償い金約300人受給

アジア
女性基金

フイリピンで追加認定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アジア女性基金、村山富市理事長)は1日、元日本軍慰安婦の「償い金」受給の申請受け付けを終了する。最終的な受給者数は約300人になる見通しだ。

同基金は国民からの募金5億5900万円を1人200万円ずつ支給してきた。基金の残額は8700万円で43人分しか

ないが、1日までに申請手続きを終える人が60人程度いるとされ、同基金

は不足分の再募金を急ぎよ呼びかけている。基金側は「プライバシ

政府による国家補償を回避するものだ」との批判があり、韓国、台湾では

局)といい、今後の受給者の大多数はフイリピン人とみられている。